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2017 의료기관 인증 자체 조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중간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병원은 총 20명의 자체조사위원을 구성해 ▲필수기준 56개 ▲최우선 관리기준 172개 ▲지속적 질향상 기준 16개 ▲성과관리 부분 34개 총 278개를 조사했다. 시스템추적조사는 ▲질향상 ▲감염관리 ▲약물관리 ▲시설안전 ▲의무기록/의료정보 등 5개 분야 서류검토와 현장 개별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었다. 또한, 자체조사 총평회를 5월 15일 개최하여 교직원들과 조사결과 및 현장조사 대비를 위한 준비 사항들을 공유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일 7일 전 병원에 통보를 하고 조사위원 2인이 하루 종일 조사한다. 채석래 병원장은 “자체 조사는 병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다.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아동 진단검사 진료비 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MRI 등 고액의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22개월 된 이 아동은 또래보다 발달이 현저하게 늦은 상태로,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의 어머니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어 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받게 됐다. 이후, 본원 사회사업실의 협조로 재활의학과 협진을 거쳐 각종 검사와 진료를 진행하게 됐다. 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 위축으로 발달지연이 있어 향후 발달 재활 치료와 발육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발달지연의 원인을 알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동의 부모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지원에 너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사회에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채석래 병원장은 MRI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였으며 “이번 진단으로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김홍범 교수, 미국 소화기 학회 우수포스터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김홍범 교수는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췌장학회(Pancreas club 2017)에 참석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 진행으로 원위 췌장 절제술에 사용되는 자동 문합기에 관한 포스터를 발표했다. 또, 5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미국 소화기 학회(Digestive Disease Week 2017)에서는 담도계 팽대부 암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한 치료 방침에 대한 연구논문(Recurrence patterns resection of Ampulla of Vater cancer : Significance of lymph node dissection around superior mesentery artery and adjuvant treatment)을 발표하여, 우수 포스터(Poster of Distinction)로 선정되었다. 한편, 미국 소화기학회(DDW)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 관련 국제 학회로, 매년 분야별 전문의와 연구자가 모여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 사례, 각종 연구 결과 등을 전시 및 발표하고 논의하는 학회이다.

내원객을 위한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내원객과 환자들의 편리한 주차공간을 위해 원내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했다. 내원객들이 병원을 찾아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인 지하주차장을 안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구조와 기능을 밝고 깨끗하게 개선했다. 특히, 구역별로 색상을 그린, 오렌지, 노랑, 베이지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위치 식별이 쉽도록 하였고, 출입문 계단실을 눈에 띄는 색상과 그래픽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기간 동안 내원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연휴기간을 이용하고, 주말과 야간작업을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바닥재 냄새 민원 방지를 위해 친환경 자재로 마감하였다. 또한, 주차장 바닥을 미끄럼 방지 기능과 차량 타이어 마찰 소음까지 고려한 개선으로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감내하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신 모든 환자 및 내원객,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넓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알리미

한방의료지원 일시: 5월 28일(일) 10시~16시 | 장소: 강화도 전등사(이주민 축제)